

“동양인으로 로미오 역은 처음”

시립오페라단 ‘아이다’ 열연 테너 신상근 뉴욕 메트 깜짝데뷔

지난 6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첫번째 정기공연 ‘아이다’에서 주인공 라다메스 역으로 출연해 강인한 장군을 표현하며 열연했던 테너 신상근(44)이 세계 성악가들에게 ‘꿈의 무대’로 통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메트)에 데뷔했다.

25일 메트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신상근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메트에서 공연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주역 로미오 역을 맡았다.

특히 이날 공연은 5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작품의 개막 무대였다. 미국 위성 라디오 시리우스XM(SiriusXM) 등을 통해 세계로 생중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를 맡았다.

본래 이 역을 맡은 테너(찰스 카스트



로노보)가 건강 이상으로 하루 공연을 취소함에 따라 메트는 신상근 투입을 결정했다.

메트 측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안드레아 신(신

상근의 영문명)이 카스트로노보를 대신하며 메트 데뷔를 하게 됐다”고 공연 전 캐스팅 변경과 메트 데뷔를 동시에 알렸다.

공연을 마친 신상근은 “커버(출연 예정자가 못 나올 경우 대신 출연하는 사람)로서 공연 중간에 메트 무대에 투입된 적은 있지만 정식 캐스팅으로 메트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연 당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급히 선 무대지만 큰 사고 없이 무대를 잘 마쳤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커버 출연 때와 달리 캐스팅 보드에 제 이름이 쓰인 걸 보니 기분이 남달랐다”며 “객석 반응도 생각보다 뜨거워 놀랐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맡은 로미오 역은 동양인 배우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배역이다.

신상근은 “메트에서 동양인에게 로미오 역을 준 건 처음이라고 들었다”며 “극장장은 사실 끝까지 백인 배우로의 교체를 원했는데, 제 연습 모습을 본 캐스팅 감독이 극장장을 설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 베이스 연광철도 로랑 신부 역으로 캐스팅돼 두 한국인 성악가가 함께 이번 공연을 이끌었다.

한양대 출신인 신상근은 그동안 독일 갈스루에 바드 국립극장, 하노버 국립극장의 전속 솔리스트로 일하며 주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전속을 그만두고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지난 6-7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아이다’에 출연해 광주 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연수 기자



미우치 스즈에 ‘아마테라스’

갤러리서 만나는 소녀만화

롯데갤러리, ‘소녀들의 열망을 비추는 거울’ 일본 만화가 12인 작품 50여점 오늘부터 전시

롯데갤러리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 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소녀만화가 12인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소녀만화의 세계- 소녀들의 열망을 비추는 거울’ 전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디렉터 도쿠 마사미에 의해 기획됐으며 한국만화박물관, 대전 롯데갤러리에 이어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주요 소녀만화가 12인의 작품 54점이 전시되며, 와타나베 마사코, 마스모토 레이, 미즈노 히데코, 마키 미야코 등 1세대, 사토나카 마치코, 미우치 스즈에, 하기도 모토 구라모치 후사코, 요시다 아키미 등 2세대, 오카노 레이코, 이마 이치코, 요시나가 후미 등 3세대 작가가 구성됐다.

일본만화는 크게 소년만화와 소녀만화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고유의 테마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소년만화의 테마는 소년 주인공이 여성과 가족, 국가, 또는 적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반면, 소녀만화는 사랑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형상이 주를 이룬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사회는 발전을 거듭했고, 소녀만화 속에 그려진 여성 역시 기존의 종속적 위치에서의 여성이 아닌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대상으로 변화한다.

테마는 여전히 사랑을 다루고 있으나,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의 사랑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닌



요시나가 후미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티크’

소녀 혹은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주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됐다.

소녀만화는 단편과 장편 등 다양한 분량과 드라마, 역사극, SF, 호러, 미스터리, 보이즈러브를 비롯해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여성들의 열망을 반영했으며, 전세계 소녀들을 매료시키며 큰 인기를 누려왔다.

이번 전시는 일본 소녀만화 대표작가 12명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전시 작품은 재현작으로 구성, 원작 작가의 사인을 넣어 특별 제작됐다. 또한 이미 출간된 일본어판, 한국어판 만화도서 등도 함께 전시해 보다 현장감 있게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062-221-1807.

/이연수 기자

‘어버이 살아실 제’



박춘맹 명창

광주국악방송, 가정의 달 맞아 내달 공개방송 이난초·박춘맹·박지운·임현빈 명창 출연

광주국악방송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무돌길 산책 공개방송 ‘어버이 살아실 제’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방송은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로, 판소리 ‘심정가’ 눈 대목을 통해 이 시대의 효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난초(남원시립국악단 총예술감독), 박춘맹(전남도립국악단 창악부 지도위원), 박지운(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정가 이수자), 임현빈(남원시립국악단 수석단원) 명창이 출연해 박종호(전라북도 무형문화재 2호 판소리 중계제 수궁가 전수교육조교) 명고의 북

반주에 심정가 눈 대목을 들려주고 전주 판소리합창단은 신명나는 남도민요연곡을 선사한다.

공개방송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8일 오후 6시 광주국악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광주국악방송은 광주 FM 99.3MHz를 비롯해 전주 FM 95.3MHz, 진도·목포·해남 94.7MHz, 남원 95.9MHz에서 들을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에서도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딩더쿵 플레이어’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정해영 작

더 풍성해진 ‘진경매화’ 전

작가 10명 내달 20일까지 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등 조선 후기 화원들은 진경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진경산수는 산천을 소재로 심상을 담아 독자적인 양식으로 화풍에 재창작한 화풍을 말한다.

매년 봄이면 매화를 즐겨 그리는 작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매화를 그리고 이를 완성해 전시를 여는 ‘진경매화’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광주시립미술관 아트라운지에서 5월 20일까지 작가 10명의 매화 작품 11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지난달 24일 중외공원 흥매를 현장에서 사생했다. 이후 개인적으로 매화그림을 완성해 이번 전시에 내놓았다.

참여작가는 김명균, 오광섭, 이선복, 이창훈, 장용림, 정해영, 조규철, 조현수, 한동훈, 황순철 등이다.

지난 18일 오픈식에는 원로시인 김준태의 흥매 즉흥시 낭송, 국악인 오목대씨의 대금 연주 등을 들려주며 그림과 시와 음악이 있는 하모니로 진경매의 뜻을 살렸다.

지난해 전시까지는 시민과 함께 작업해 전시했다면 올해는 새로운 작가들을 보강해 작가 참여로만 전시가 이루어진 게 특징이다. 한국화와 서양화 작가들의 참여로 작품은 더욱 풍성해졌다.

황순철 작가는 “매화나무 아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옛 시인묵객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찬양하는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확장 OPEN

광주·전남 총판 최다 판매점

LG, 삼성, 대우디스플레이, 캐리어 100% 국내산

태양광 바겐세일

3~10Kw 발전소 상담 LG·한화·현대

태양광 주택용 상가용 480만원

초기설치비용 없음

(A/S 10년, 모듈 25년 보장 / 농협 전액융자)

24인치	15만원	55인치	49만원
32인치	16만5천원	65인치	69만원
40인치	30만원	75인치	81만원
43인치	34만원	86인치	93만원
49인치	38만원	98인치	105만원

에어컨6평	35만원	세탁기	24만5천원
냉난방기7평	49만원	드럼세탁기	37만7천원
냉장고182L	24만원	싱크드럼건조기	114만원
3양문형냉장고	68만원	공기청정기	25만원
김치냉장고	47만원	전자렌지	5만9천원

호텔, 모텔, 병원, 원룸, 오피스텔, 사무실,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상가 등

TOPTV 리움 062) 365-3100, 1588-3089

전문 상담직원 상시대기 010-6869-3100

농, 어촌, 주택, 상가, 전원주택, 펜션, 축사 등.